

버려진 것들 잊혀진 가치

되살리다 되돌리다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재미작가 변종곤. 올해는 그가 뉴욕에 정착한 지 33년이 되는 해다.



광주시립미술관 '변종곤-되돌리다' 전 오늘~내달 27일

뉴욕 생활 30여년 작업 결과물 동서고금 문명비판 147점 선배

향수 '샤넬 넘버5'를 들고 있는 인디언 부족을 그린 극사실주의 회화, 여성만 큼이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현악기에 타투를 하듯 그려진 그림, 죽은 슈퍼맨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피에타 등...

2000년 뉴욕 타임즈가 문화면 전면을 할애한 작가, 2012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작가 변종곤(66)의 작품은 스펙트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미작가 변종곤이 광주시립미술관의 초대작가 18일부터 7월27일까지 미술관 3, 4전시실에서 '변종곤-되돌리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33세에 미국 뉴욕으로 떠나 꼬박 33년이 흐른 뒤에 한국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여는 변종곤은 동서고금을 초월해 문명비판 메시지를 담은 작품 등 147점을 선보인다.

지난 1978년 제1회 동야미술제에서 미군비행장을 그린 사실주의 회화로 대상을 받은 그는 당시 자유를 억압받던 한국의 현실에 분개하며 혈혈단신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88을

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국을 오간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작품 구상 등을 위해 광주와 뉴욕을 오가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전시 준비가 한창인 17일 만난 그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작가들에게 광주 전시 소식을 알렸더니 모두 부러워했다. 그만큼 광주가 재외 한인 작가들에게 문화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변해버린 한국을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그의 작품들은 종교 문제, 인간의 실존적 문제, 현대 문명의 문제 등을 다룬다.

"뉴욕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거리에 버려진 가전제품들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다 타버린 연탄재조차도 겨울에 눈길에 뿌릴 만큼 물건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33년이 흐른 지금 미국에서는 작은 티스푼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전제품, 가구, 옷 등이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도가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것들에는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뉴욕 할렘가에서 생활했던 그는 물건 살 돈이 없어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다 분해하고 또 부속품들을 '중매'하듯 결합해 믹스 미디어(Mixed Media) 작품을 만들었다. "뉴욕 생활이 너무 힘들어 집중감이 줄어들기도 했다"는 그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새로운 예술 세계에 눈을 떴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뉴욕 한 화랑 대표에 의해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된 이후에도 회화와 함께 믹스 미디어 작품들을 꾸준히 해나갔다.

"한 물건이 가진 이야기와 또 다른 물건이 지닌 이야기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 작품입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가 아이디어고, 작품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 중 하나가 '현악기' 작품입니다."

그의 뉴욕 자택은 하나의 거대한 설치작품이다. 30여 년 넘게 베틀시장 등 거리에서 사고, 주운 작품들로 빼곡히 채워놓고, 이야기 코드가 맞는 작품들을 선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는 우연히 프리마켓에서 다 부셔진 여성의 신체를 닮은 바이올린을 발견하고 거기에 작품을 입혔다.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비례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뤘다. "좋은 악기일수록 좋은 연주자의 체취가 느껴져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라는 게 그의 말이다.

이 밖에도 부처부터 인체모형, 한국의 관상그림, 우주복, 샤넬 향수까지 작품들의 주제는 시공을 초월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뉴욕에서 눈을 감은 고(故) 김보현 화백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보현 화백의 바람처럼 뉴욕에 있는 갤러리가 광주 미술인들의 해외 진출 창구이자, 한국 문화원 역할을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문의 062-613-7100. /글·사진=김경민기자 kki@



정은미 작 '휴식'

'제30회 무등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정은미 '휴식' 양화 대상·정민영 '여행' 한국화 대상

'제30회 무등미술대전'에서 '휴식'을 출품한 정은미(49·서울 강남구)씨가 양화 부문 대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정민영(21·광주시 서구)씨가 '여행'으로 대상에 선정됐다.

(사)광주비엔날레전협회회는 지난 16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30회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7개 부문 7개 작품을 대상으로, 9개 부문 23개 작품을 우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수채화, 조각 부문 대상작은 없다. 이번 무등미술대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9개 부문에 1261점이 응모했으며 특선 216점, 입선 520점 등을 포함해 모두 766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문인화 오봉석(45·서울 서초구) '가을향기' ▲판화 윤주희(53·전주 완산구) '형+색+선의 조화' ▲공예 이선미(27·순천시 연향동) '대형투각향아리' ▲서예 김경자(55·경기도 구리시) '여정詩' ▲사진 전인순(76·서울시 서초구) '우주를 향하여' 등이다. 문의 062-233-19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도 미학용어 '권' 성찰

'문학들' 여름호 나와

광주지역 대표 문예지 '문학들' 여름호(통권 36호·사진)가 나왔다.

특집으로 다룬 '남도'와 '권'의 문학'에서는 전동진 씨와 김양호 씨가 남도의 미학 용어인 권에 대한 성찰과 남도에 뿌리를 둔 여섯 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권'의 문학을 조명한다.

다른 특집 문학사 '들'에서는 이송순 씨가 '승려에서 시인으로, 불심에서 시심으로'를 매개로 고희 출신 조종현 시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 다른 특집 문학사 '들'에서는 이송철 시인이 '광주의 문학 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를 주제로 '서울의 봄'과 '5·17쿠데타' 그리고 광주 문인들의 진실투쟁을 깊이 있게 추적한다.

소수자들의 담론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에서는 지적 장애를 둔 아이의 어머니인 공은희 씨가 아이에게서 생명을 되받아 살아가는 일상을 소개한다.

이밖에 김현주 작가 등 3명의 소설과 김경철 시인 등 9명의 시, 김청우 비평가 등 3명의 평론은 또 다른 읽을거리다. /박성천기자zskypark@kwangju.co.kr

소설가 한승원 초청 강연

광주평화방송, 20일

광주평화방송(광주PBC)은 소설가 한승원(사진) 작가를 초청해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평화방송 5층 다목적 홀에서 명사초청강좌를 진행한다.

한 작가는 이날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인생 여정과 인생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 작가는 1968년 대한일보에 단편 소설



'묵선'이 당선돼 등단한 이후 40여 년 동안 '포구의 달', '해산 가는 길', '아제야제바라야제', '화사', '초의', '다산' 등 향토색 짙은 소설을 집필했다.

최근에는 국창 임방울(1904~1961)의 삶과 예술을 다룬 소설 '사랑아 피를 토하라'를 펴냈다. 문의 062-231-770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 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 1899-0240